

# 清上防風湯으로 호전된 성인 여드름 환자 치험 1례

김지현<sup>1</sup> · 유동열<sup>1\*</sup>

## A Case Report of Acne Vulgaris Patient Treated with Cheongsangbangpung-tang

Kim Ji-hyun<sup>1</sup> · Yoo Dong-youl<sup>1\*</sup>

<sup>1</sup>Dept. of Gynec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effect of Chungsangbangpoong-Tang(as followed CBT) on an adulthoods' acne vulgaris.

**Methods:** This is a case report on a female patient who has been suffering from acne vulgaris since she was 19 years old. To make her acne condition better, we designed to provide a specific combined treatment, mainly drinking CBT 2 or 3 times per a day with taking a herbal, acupuncture therapy and acupuncture once per every week through whole session.

**Results:** After a series of we prescribed CBT treatments, we could find that CBT treatments are effective and available to ameliorate for her symptoms of acne vulgaris within its period.

**Conclusion:** This clinical case study shows us that CBT might have not only a potentiality as a new acne treatment but also an effect as a new available prescription for adulthoods' acne. Hence more specific studies about CBT should be demanded in a treatment fields of adulthoods' acne vulgaris as soon as possible.

**Key Words :** Acne Vulgaris, Chungsangbangpoong-Tang(CBT)

### I. 緒 論

清上防風湯은 明代 龔廷賢의 『古今醫鑑』에 처음 수록된 방제로, 이후 여러 의가들이 頭面의 瘡癩과 風熱毒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여왔다. 방제의 구성은 防風, 白芷, 連翹, 桔梗, 黃芩, 川芎,

荊芥, 梔子, 黃連, 枳殼, 薄荷, 竹瀝 및 甘草로, 임상에서는 風熱로 변증되는 면포질환에 사용하였다<sup>1)</sup>.

면포란 현대의 여드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의보감에서는 風刺라는 명칭으로도 불리었다<sup>2)</sup>. 그 외에도 瘡瘡, 肺風粉刺 등의 용어들로 사용되었고, 그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脾胃濕熱, 血熱, 脾虛濕痰, 肺熱 등으로 나누어졌다<sup>3)</sup>.

청소년기 이후 시기에 발병한 여드름을 성인기 여드름이라고 하는데, 이는 20세 이후에 잘 발병하며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이 원인이 되어 발

\* 교신저자 : 유동열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136번지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여성외과  
E-mail : ydy1010@dju.kr  
투고일 : 2013년 7월 4일 수정일 : 2013년 8월 5일  
게재일 : 2013년 8월 9일

생한다. 임상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기의 여드름에 비해 염증성 병변이 많고 면포가 적은 양상을 보인다. 분포 부위는 대개 입, 턱, 턱선 주위이며, 여성의 발병률이 더 높다<sup>4)</sup>.

최근 들어 성인 여드름의 이환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생활 및 식습관의 변화, 여드름에 대한 질병으로서의 인식 변화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향상된 욕구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서구 식습관의 보편화에 따른 과도한 칼로리 공급이 인슐린 저항성을 야기하여 성인 여드름의 발생을 촉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sup>5)</sup>.

피부질환에 있어, 여드름 환자의 삶의 질은 건선 환자의 삶의 질과 유사한 정도로 측정되는 것을 볼 때 정상인이나 기타 피부질환을 가진 환자에 비해 불량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은 연령대가, 유병 기간이 길수록, 다 병변일수록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sup>6)</sup>.

또한 강박장애(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는 여드름을 포함한 피부 질환 환자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정신적인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sup>7)</sup>.

서양의학에서는 박테리아의 리보솜에서 단백 합성을 저해시키는 정균성 항생제인 tetracycline, erythromycin 또는 minocycline 계통의 약제를 염증성 여드름 치료의 1차 선택약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tetracycline 계통의 항생제는 소화기계 장애, 광독성, 피부발진, 치아색소침착, erythromycin 계통의 항생제는 오심, 구토, 식도불쾌감, 심장에 대한 독성 등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sup>8)</sup>.

특히 erythromycin은 빈번한 소화기계 부작용을 보여준다<sup>9)</sup>. 또한 Minocycline은 위험성은 경미하지만 홍반성 낭창(lupus erythematosus)과 연관되어 있으며, 사용 기간과 비례하여 자가면역 반응의 위험도가 증가한다<sup>10)</sup>. Isotretinoin은 여드름 환자의 치료 후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1)</sup>.

淸上防風湯의 여드름에 대한 연구로는 임상적으로 채<sup>12)</sup>의 加味淸上防風湯을 3주 이상 복용한 경우에 현저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다는 보고가 있고, 조<sup>13)</sup>의 淸上防風湯의 구성약물이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하여 강한 항균력이 있어 화농성 여드름에서 세균억제로 여드름이 염증단계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보고가 있다.

淸上防風湯의 실험 결과는 유의성이 있었으나 성인 여드름에 국한되면서, 임상적으로 적용한 증례 보고는 쉽게 찾아볼 수 없어서 본 증례를 통해 여드름 치료에 대한 淸上防風湯의 효능을 究明하고자 한다. 외래에 내원하였던 성인 여드름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학적 변증시치를 통한 치료를 시행한 결과 유의한 성적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證 例

1. 환자 : 안 O O (F/23)
2. 진단명 : 성인 여드름
3. 주소증 : 화농여드름, 붉은 여드름, 좁쌀여드름, 피지과다, 면부 소양증, 상열감, 수족냉증, 부종
4. 발병일 : 2012년 5월 초
5. 과거력 : None of specific
6. 가족력 : None of specific
7. 현병력 : 2012년 5월 초에 양측 안면부에 성인 여드름 증상이 발생 되었고, 현지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기타 요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2013년 1월 귀국 후 타 의료기관 방문 없이 적극 한방치료 위해 2013년 2월 2일 OOO한의원을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시작하였다.
8. 초진시 소견
  - 1) 소화기계 : 消和 良好, 食慾 良好, 1일 2~3끼를 섭취.
  - 2) 수면 : 평균 8시간 睡眠(0시~8시), 多夢.
  - 3) 대변 : 良好, 1回1~2日, 快
  - 4) 소변 : 良好, 3~4回1日, 快
  - 5) 설진 : 舌紅 白苔 舌裂
  - 6) 맥진 : 浮數
  - 7) 복진 : 이상 소견 없음.
  - 8) 변증 : 上焦風熱, 脾胃風熱

2. 치료 및 경과

1) 한약 치료 : 2013년 2월 5일 ~ 2013년 3월 20일

清上防風湯 (防風 4g, 白芷, 連翹, 桔梗 3.2g, 苦芩(酒炒), 川芎 各2.8, 荊芥, 桔梗, 梔子, 黃連(酒炒), 枳殼, 薄荷 各2g, 甘草 1.2g)을 하루 2침 3회로 나누어 복용하도록 하였다.

2) 약침치료

가) 사용약침

대한한의사협회, 황련해독약침

나) 방법

화농이나 붉은 여드름을 압출한 부위에 약침 0.2~0.3cc 자입

3) 침 치료

첫 치료 시작일인 2013년 2월 2일부터 2013년 3월 20일까지 일주일 1번 내원시마다 시행하였으며, 大腸正格(足三里 曲池-補, 暘谷 陽谿-寫)을 기본으로 호침(0.25×3.0mm, 동방침구제작소, 한국)으로 刺針하고, 내원 시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穴位를 가감하여 1회당 15분 留鍼하였다.

3. 증상의 호전도 판단근거

1) 임상사진 및 한국형 여드름 중증도(Korean acne grading system, 이하 KAGS) 분류

치료 전후에 촬영한 임상 사진으로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였다. KAGS의 기준에 따라 구진 10개 이하는 grade 1, 구진 11~20개 이하는 grade 2, 구진 31개 이상이거나 결절 10개 미만은 grade 3, 결절 11~20개이면서 약간의 진행형 흉터가 있는 경우 grade 5, 결절이 31개 이상이면서 심한 진행형 흉터나 농루가 있는 경우는 grade 6이라 진단하였다.<sup>14)</sup>

2) 한국어판 여드름 장애 지수(cardiff acne disability index in korea)

KCADI는 5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여드름으로

인한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고, 1992년 개발되고 국내에는 2010년 번역되어 쓰여지고 있는 평가 도구이다. 임상적으로 여드름 환자의 삶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된 도구이다.<sup>15)</sup>

3) 임상적 증상 변화 양상은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증상인 화농여드름, 붉은 여드름, 좁쌀여드름, 피지과다, 면부 소양증, 상열감, 냉대하, 수족 냉증을 지표로 Severe(+++), Moderate(++), Mold(+), Trace(±), Eliminate(-)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판단하였다.

4. 치료경과

Table1. The Clinical Progress

	0주	1-2주	2-4주	4-6주	7주
화농 여드름	10개	8개	8개	5개	-
붉은 여드름	19개	15개	13개	9개	5개
좁쌀 여드름	31개	25개	21개	15개	9개
피지과다	+++	+++	++	++	+
면부 소양증	++	+	+	+	-
상열감	+++	++	+	+	-
냉대하	++	++	+	+	+
수족 냉증	++	++	++	+	+

Symptom: Severe(+++), Moderate(++), Mold(+), Trace(±), Eliminate(-)

본 연구의 환자는 이란유학생으로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며 학업스트레스와 환경 및 식습관변화로 인한 上焦風熱과 脾胃風熱 증상으로 여드름이 발생하였고 본원 내원 당시 양방 치료는 전무한 상태였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 본원에서 약물요법, 보조요법으로 약침요법과 침구요법을 동시에 시작하였다. 상기 환자는 2013년 2월 2일부터 3월 20일 까지 침구치료와 약침치료를 총 7회, 清上防風湯은 2013년 2월 2일에 처방이 되어 2013년 2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清

上防風湯 방약합편 원방 2첩 3회 분량을 내복하였다. 외부치료는 총 7회(7주), 淸上防風湯을 7주간 복용 후 두면부의 여드름이 전반적으로 호전되었고, 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없이 증상이 호전되어 높은 만족감을 느꼈다.

탕약 7주 복용이 끝날 시점인 2013년 3월 20일 에는 화농여드름은 완전히 소실되었고, 붉은 여드름과 좁쌀 여드름의 개수는 각각 5개, 9개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KAGS는 치료 전 grade 3에서 grade 1로 변화하여서, KAGS 기준에 따라 구진 10개 이하를 보였다. KCADI 점수는 10점에서 3점으로 변화하였다.

임상적 증상의 변화는 피지과다 Severe(+++)에서 Mold(+)로, 면부소양증은 Moderate(++)에서 Eliminate(-)로, 상열감은 Severe(+++)에서 Eliminate(-), 냉대하는 Moderate(++)에서 Mold(+)로, 수족냉증은 Moderate(++)에서 Mold(+)로 모두 증상의 현저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처음 내원 시 화농여드름은 10개 정도 양측볼과 턱 아래쪽에 불규칙적으로 퍼져있었고, 붉은 여드름은 19개 정도 양측볼, 이마, 턱아래쪽에 돌출된 형태였다. 좁쌀여드름은 31개 정도 양측볼 안쪽이 심한 상태였으며, 얼굴 전체에 퍼져있었다. 피지 분비는 T존을 중심으로 오전보다 오후에 심해지는 형태를 보였고, U존은 비교적 건조한 상태였다. 얼굴 소양감은 화농이나 붉은 여드름이 난 곳으로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나타났고, 얼굴 상열감 역시 오전보다 오후, 저녁으로 갈수록 나타났으며 약간의 얼굴홍조도 유발시켰다. 냉대하는 백색의 불투명한 형태로 많은 편이었으며, 심신이 피로할 때 냄새도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수족냉증은 평소에는 못 느끼다가 기온이 내려갈 때 더 느껴지는 정도였다.

초기에 淸上防風湯을 복용한 지 1-2주 경과한 뒤부터 화농여드름 개수가 줄기 시작하였고, 염증이 되기 전의 붉은 여드름은 크기가 작아져서 나기 시작하였다. 피지분비가 서서히 줄면서 좁쌀여드름의 개수도 줄어들었다. 면부 소양증과 저녁 무렵 나타났던 상열감의 횟수와 강도가 줄어들었다. 냉대하는 양과 냄새가 줄면서 맑게 조

금씩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수족냉증은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다가 한약 복용 후 4-6주 무렵부터 호전되었다. 淸上防風湯을 7주간 복용 후 약침치료와 침구치료만 병행하였다가 치료를 종료하였다.

9. 치료 종료시 소견

- 1) 소화기계 : 消和 良好, 食慾 良好, 1일 2~3끼를 섭취.
- 2) 수면 : 평균 7~8시간 睡眠(11시~7시).
- 3) 대변 : 良好, 1회1日, 快
- 4) 소변 : 良好, 7-8回1日, 快
- 5) 설진 : 舌微紅 微白苔
- 6) 맥진 : 緩脈
- 7) 복진 : 이상 소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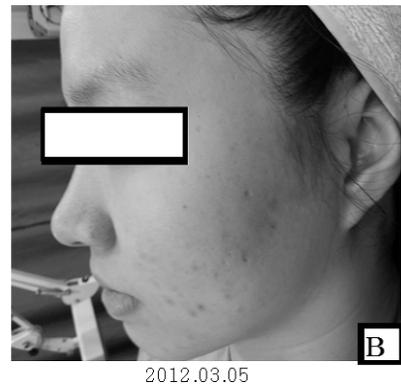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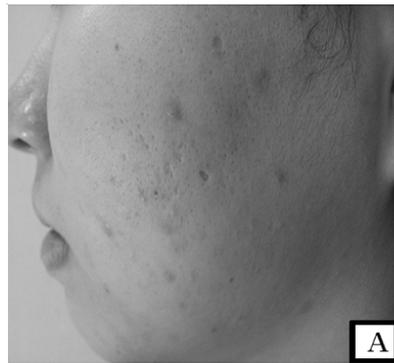


Fig 1. Before Treatment (A) and After Treatment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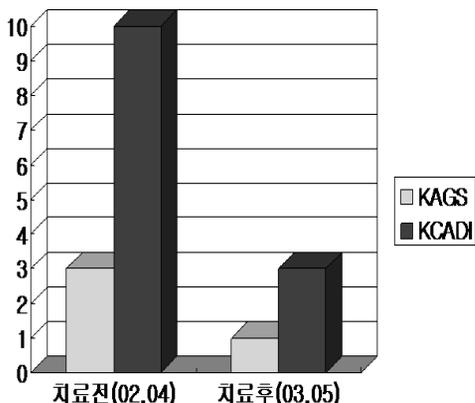


Fig 2. 치료전후 KAGS와 KCADI 변화상태

### III. 考 察

청소년기로부터 중년에 이르도록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되어오고 있는 가장 흔한 피부질환인 여드름은 피부의 모낭(follicles)과 피지선(sebaceous gland)에 발생한 염증성 병변이다. 얼굴, 목, 가슴, 등과 같은 피지선 밀집 부위에 호발하며, 경우에 따라서 중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재발되기도 하며, 후유증으로는 염증이 심할 경우 흉터, 색소침착 등의 비가역적인 병변을 남긴다.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흔히 호발하므로 이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sup>16)</sup>.

여드름에 대한 일반적인 양방 치료는 항안드로젠제제, 스테로이드제제, 항생제 및 레티놀 투여를 통한 피지 생성 억제 기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Benzoyl peroxide, Clindamycin, Azelaic acid, Sodium sulfacetamide 등과 같은 국소 도포제 과다 사용의 경우 진피 건조증, 접촉성 피부염과 같은 부작용이 자주 발생한다<sup>17)</sup>.

明代의 의서인 『古今醫鑑』에 기재된 처방인 清上防風湯은 "清上焦火 治頭面生瘡癩 風熱毒"의 병증을 치료하며, 현대적으로는 습열성 피부질환, 피부소양증과 습진 등에 이용되고 있다. 그

구성은 防風, 白芷, 連翹, 桔梗, 黃芩, 川芎, 荊芥, 梔子, 黃連, 枳殼, 薄荷, 竹瀝 및 甘草로서, 防風은 가볍게 祛風濕하는 효능이 있고, 川芎과 白芷는 頭面으로 작용하며 川芎은 活血生血작용을 하며 白芷는 消腫排膿하며 또한 발산하는 작용이 있다. 또한 桔梗, 枳殼은 桔梗枳殼湯으로 宣肺 작용을 하여 皮毛를 열어 노폐물을 잘 배설하도록 한다. 黃芩, 黃連, 梔子は 上中焦의 열을 清熱解毒하며, 連翹는 清熱解毒 및 透發작용을 통하여 열독을 宣透한다. 荊芥, 薄荷는 가벼운 발산지제로서 消風散結하는 효능이 있다. 竹瀝은 상초의 火와 熱痰을 내리고 清心작용을 하여 스트레스 증상의 완화에 기여한다. 甘草는 調和諸藥한다<sup>18)</sup>.

면부에 간헐적으로 오르고 내렸던 상열감은 上中焦의 열을 清熱解毒시키는 黃芩, 黃連, 梔子の 효능으로, 냉대하는 肺, 胃, 大藏經에 들어가 작용하며 排膿에 능한 白芷, 桔梗의 祛痰작용으로, 수족냉증은 上焦風熱으로 인한 上熱下寒 증상이 上中焦의 열을 내리는 黃芩, 黃連 작용으로 개선되었음이 사료된다. 그러나 본 환자의 화농 여드름은 완전히 소실되었지만, 붉은 여드름과 좁쌀 여드름은 잔존하는 상태에서 한약 복용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중단하였다. 본 환자에게 투여한 清上防風湯을 지속 투여하였다면, 붉은 여드름과 좁쌀 여드름 및 피지과다, 냉대하와 수족냉증의 제반 증상의 추가적인 호전이 있었으리라 예상된다.

본 환자의 경우, 清上防風湯 복용과 동시에 약침요법과 침구요법이 보조적인 치료방편으로 병행되었다. 약침요법의 경우 여드름 압출 후에 붉음증이나 잔존하는 염증인자 완화를 위해서 사용되었고, 침구요법은 환자의 체질적 취약점이나 불편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되어 치료의 효율을 높였다. 따라서, 본 환자는 안면부의 여드름이 熱症에 의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소염과 진정을 동시에 시켜줄수 있는 황련해독약침이 사용되었다. 여드름은 원인은 肺經風熱이 주된 이유가 되는데, 폐와 대장은 서로 表裏가 되면서, 足湯明胃經과 手陽明大腸經이 면부를 유

주한다.<sup>19)</sup> 이러한 風熱症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장경의 원혈인 습곡이 포함된 大腸正格을 기본혈자리로 취혈하였다. 여드름 치료에 대한 淸上防風湯 단독투여의 유효성에 대한 신뢰도를 위해서는 여드름 치료에 대한 淸上防風湯 단일 처방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성인 여드름의 양약 치료 시 나타나는 불필요한 부작용을 고려해 볼 때, 부작용 없는 한방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증례를 통하여 기존의 항생제를 통한 성인 여드름 치료가 아닌 한약 처방과 약침 및 침구치료가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항생제 치료의 경우 재발이 잘 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한방치료를 적용하였을 경우 환자의 내부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하여 여드름 재발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신적인 요인과 관련된 성인 여드름의 삶의 질 예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IV. 結 論

淸上防風湯이 성인 여드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환자에게 淸上防風湯을 투여한 결과, KAGS는 치료 전 grade 3에서 grade 1로 변화하였고, KCADI 점수는 10점에서 3점으로 변화하였다. 화농여드름, 붉은 여드름, 좁쌀여드름, 피지과다, 면부소양증, 상열감, 냉대하, 수족냉증 등의 증상이 현저히 호전되었다. 치료법은 약물요법에 약침요법과 침구요법이 병행되었으며 환자가 호소하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다.

위 증례를 통하여 성인 여드름 치료에 淸上防風湯을 사용할 시 여드름 및 제반증상의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參考文獻

1. 김민주, 김중고, 채병윤. 면포에 응용되는 청상방풍탕의 효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경희의학, 8(3) : 265-275, 1992.
2. 허준. 동의보감. 서울, 동의보감출판사. p476, 2005
3. 정혜윤, 지선영. 여드름에 대한 동서의학적 고찰. 동서의학, 22(4):51-3, 1997.
4. 안성구, 성열오, 송중원. 여드름바이블. 서울, 진술. pp26-9, 2006.
5. 신민경, 김낙인. 성인기 여드름의 임상양상과 혈청 IGF-1의 상승. 대한피부과학회지, 46(5):619-626, 2008.
6. 안봉균, 이상주, 남궁기, 정예리, 이승현. 여드름 환자의 삶의 질 조사. 대한피부과학회지, 43(1):6-14, 2005.
7. Bez Y, Yesilova Y, Ari M, Kaya MC, Alpak G, Bulut M. Predictive Value of Obsessive Compulsive Symptoms Involving the Skin on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Acne Vulgaris. Acta Derm Venereol, 93:1-5.
8. 안성구, 성열오, 송중원. 여드름바이블. 서울,진술. pp304-11, 2006.
9. Ochsendorf F. Systemic antibiotic therapy of acne vulgaris. J Dtsch Dermatol Ges, 4(10):828-41, 2006.
10. Falk Ochsendorf. Minocycline for acne vulgaris.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Dermatology, 11(5) :327-341, 2010.
11. Cyrulnik AA, Viola KV, Gewirtzman AJ, Cohen SR. High-dose isotretinoin in acne vulgaris: improved treatment outcomes and quality of life. Int J Dermatol, 51(9):1123-30, 2012.
12. 채병윤. 면포 환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1(1):251-68, 1998.
13. 조희창, 오은영, 지선영, 서부일. 淸上防風

- 湯 및 구성약물의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한 항균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본초학회지, 18(2):37-47, 2003.
14. 성경제, 노영석, 최용호, 오정준, 이주홍, 이선우, 김낙인. 한국형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 대한피부과학회지, 42(10):1241-7, 2004.
  15. 김경한, 박영재, 이상철, 박영배. 한국어판 CADI 설문지 개발. 대한한의학학회지. 14(2):43-50, 2010.
  16. 이성환. 면포 환자 54례에 대한 변증 분류. 대한피부과학회지, 1(1):115, 2005.
  17. 김성은, 리순화. 토사자 추출물을 함유한 화장품이 여드름 피부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지, 10(3); 493-501, 2012.
  18. 진경선, 임태형, 박은정, 이해자, 한경훈, 나원경. 청상방풍탕의 아토피성 알레르기 반응 조절 효과.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18(2):61-76, 2004.
  19. 김동일, 이태균. 여성 여드름 환자에 대한 부인과 외래진료에 관하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4(3):80-100, 2007.